2025.10.30

HK market insight

예상보다 이른, 예상보다 양호한 한미 무역 협상

흥국투자전략 **이영원** / (02)739-5848 / youngwon@heungkuksec.co.kr

- 예상보다 이른 시점의 한국 미국 무역협상 타결
- 관세 부문, 자동차 관세율 15% 하향. 제네릭 의약품, 항공기 부품 등 무관세 적용
- 투자협정 부문, 연간 상한 200억달러 설정. 외환시장 부담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

주요 협상 결과

당초 이번 APEC회의기간 내 한국-미국간 무역협정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무역협정이 타결, 발표되었다. 크게 관세 관련 부분과 투자협정 관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

지난 7/30일 합의를 기본으로 추가 협상 결과 도출했으며 합이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대 미국 수출에 대해 15%의 관세율 유지, 2)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도 15% 적용, 3) 의약품, 목재에 대해 최혜국 대우 보장, 4) 항공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 무관세, 5) 반도체는 대만과 동일한 관세 적용, 6)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15%를 넘어가는 품목의 경우 한미 FTA 해당 품목일 경우 15%로 제한, 7)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음.

투자협정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협력(MASGA) 1,500억달러로 구성

현금투자의 경우

1) 연간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투자로 인한 외환시장 부담이 가중될 경우 투자한도의 조정을 가능케 함

2) 투자금액의 집행은 선불지급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 진척도에 따른 투자금액 집행(Milestone)방식을 채택

3) 투자 원리금 회수를 위해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기한인 20년 내에는 5:5, 기한 내 상환이 불투명할 경우 수익 분배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음.

4) 각 투자 프로젝트에 SPC를 구성, SPC구성은 엄브렐라 SPC 형태로 투자 수익의 관리를 도모. 프로젝트 매니저

는 한국인을 선임

조선업협력(MASGA)의 경우

한국업체가 주도하며 FDI에 따른 국내외 은행을 통한 지급보증 활용과 선박금융 활용을 모두 포함해 구성하기로 합의.

이밖에 대규모 투자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한국의 외환보유고 등 외화자산의 투자 형태를 주축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경우에는 정부 보증채의 발행 등의 방식을 동원, 외환시장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

관련 합의 내용은 MOU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발효 시점은 MOU내에 포함된 국내 입법 절차를 고려, 입법 발의가 이루어진 달 첫째 날로 소급 적용키로 함. 11월 중 입법 발의가 진행될 경우 11월 1일부터 적용

선방한 무역협정, 긍정적 반응 예상

외환시장 부담 완화: 한-미 통화 SWAP 등 그간 거론되던 방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연간 한도를 설정해 실질적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9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220억달러이며 외화자산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운영 중이며, 이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거론하고 있다. 연간 200억달러 상한을 유지하고 지난 10년평균 경상수지 734억달러, 무역수지 451억달러(대미 무역수지 260억달러)를 감안할 경우 감당 불가능한 대규모 압박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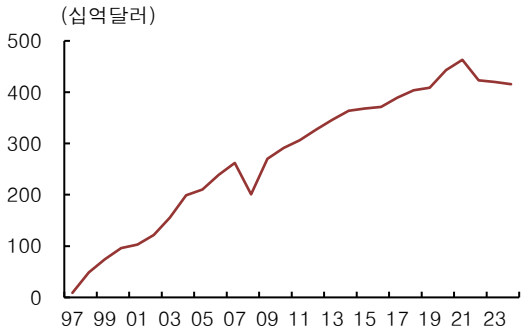
외환보유고 내 부담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도 해외 자금시장에서 정부보증채 발행 형식의 조달로 기존 외환시장의 부담은 회피하는 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투자수익: 각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을 상환기한 내에 5:5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상환기한이 20년으로 설정된 점을 감안하면 기대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투자 손실 가능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프로젝트 선정 등에 한국의 의견을 개진할 구조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별 SPC 운용에 엄브렐러 SPC 방식을 적용, 투자 수익 악화 위험을 관리하기로 한 점 등은 안정장치로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자동차와 부품 등 핵심 산업을 포함 15%의 관세율을 확정해 EU,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대미 수출 경쟁력의 격차를 해소한 점이 핵심이며, 특히 자동차의 관세율 15%는 9-10월 적용되던 차별적인 25% 관세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해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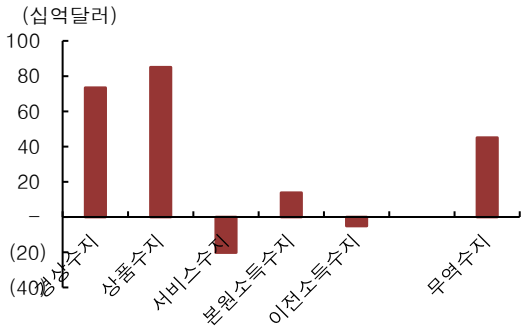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의약품(최혜국 대우)과 제네릭 의약품(무관세)의 경우 국내 제약업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항공기(및 부품) 산업 역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그림 1 한국 외환보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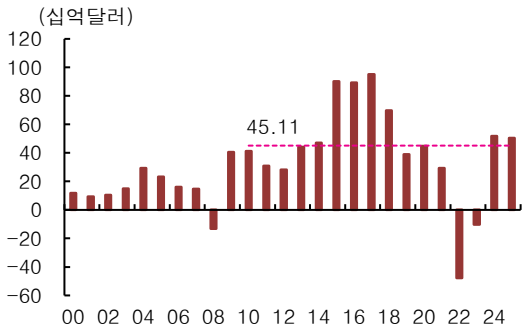
자료: 지표누리,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2024년 한국 경상수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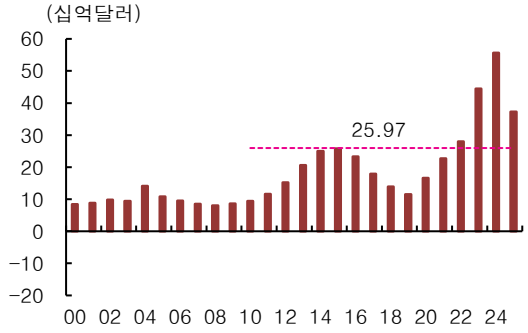
자료: 지표누리,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한국 무역수지 추이와 최근 10년 평균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한국 대미 무역수지 추이와 최근 10년 평균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Heungkuk 흥국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흥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흥국씨앗체는 흥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흥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흥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

Heungkuk
흥국증권

□ 주소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14층)
(리서치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6층)
□ 전화번호 영업부 대표 02)6742-3635
□ 팩스 영업부 대표 02)739-6286